

내추럴 무드 풍기는 목가적 풍경

잠실동

2022. 10. 11

2022. 10. 11

회색빛 도시, 콘크리트 빌딩 속에서 허둥지둥 살고 있는 도시인들에게 자연의 풍성한 내음을 느끼게 해주는 곳. 요즘 젊은이들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부근에 위치한 '르샤'는 도심의 빌딩숲에서 전원의 신선한 내음을 맞볼 수 있는 곳이다.

고향이란 의미를 지닌 르샤의 인테리어 컨셉은 나무와 석회,시멘트라는 자연소재로 꾸며 '내추럴 무드의 편안한 공간 분위기'이다. 이를 위해 가구는 이곳 주인(대표 이도형)이 직접 주문 제작했는데 주인의 남다른 감각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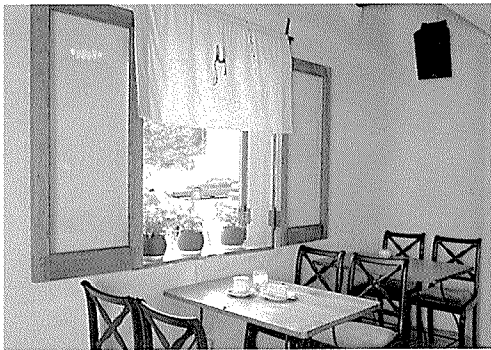
르샤의 전체적 이미지는 멕시코 산타페나 지중해 연안 농가주택에서 연상되는 목가적인 풍경을 그릴 수 있다. 실내는 4개로 공간을 분할하고 마치 문이 있는 듯 작은 문을 달고, 벽과 벽 사이에는 창틀없는 창을 구성한 것이 회벽색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천정의 목재 트러스트와 배관 시스템을 노출시키고 회벽칠과 콘크리트 회벽의 러프한 표현이 이곳에서는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천정 높이에 매달린 탑 라이트, 부드러운 키가 큰 스탠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포도등의 조명들이 매우 독특하면서도 이곳의 분위기 조성에 특특히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르샤의 매력은 회벽위에 올려 놓은 쇼케이스에 있다. 회벽의 러프한 느낌과 쇼케이스가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케이크는 5종류. 청담동 원재과 제품이다. 한조각 2천원에 하루 40개 정도 판매되고 있다. 낮에는 중년층이, 저녁에는 젊은층이 주고객이다.

카페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 케이크를 제공하는 이곳 주인의 컨셉은 이제 더이상 낮설지 않다.



②

- ④ 나무와 검은 철이 조화를 이룬 르샤의 출입문이 독특하다.
- ⑤ 르샤의 외장은 전혀 카페 분위기가 들지 않는다. 간판을 배제하고 검은색의 철로 두른 담장만의 테이블이 목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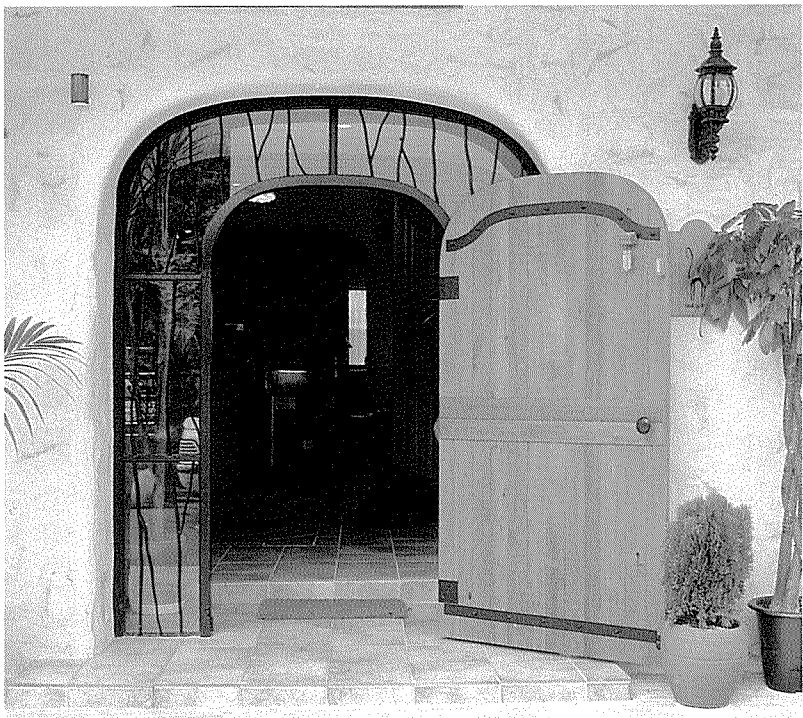


④



③

- ① 입구에서 바라본 쇼케이스가 있는 서비스 테이블. 회벽과 백색 시멘트로 터치하여 전체적으로 러프하면서 자연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마치 지중해 연안의 목가적인 어느 한 농가를 찾아온 느낌이다. 실내공간을 분할하면서 문을 없앤 것이며 벽과 벽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구멍을 내버린 창은 유럽풍의 인테리어를 실현한 이곳만의 특징이다.
- ② 활짝 연 여담이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도 좋겠고 비나 눈이 내려도 마냥 좋을 듯한 분위기다. 천정의 트러스트가 좁게 설치되어 있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③ 베이지 톤의 소파가 보기만 해도 편안해 보인다. 흑백사진 액자에 조명을 맞춘 스포트 라이트와 스탠드, 포도등이 이곳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⑤

주소:서울 강남구 잠실동 180-4 ●면적:37평 ●마감재/벽,천정:회벽위 백시멘트 바닥:자기질 타일 조명:포도등



몸과 마음이 함께 넉넉해지는 공간

일산시

프랑세즈

Francaise

지난 8월18일 개점한 프랑세즈 일산1호점(대표 박찬일)은 커피전문점과 복합한 대형 베이커리 매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에 있는 곳이다.

지방마다 유명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프랑세즈가 위치한 구일산 사거리는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서만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재래시장이 여전히 열리고 있는 활기있는 상업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프랑세즈의 인테리어 컨셉은 이곳을 지나는 다양한 고객층에게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 있다.

3층 건물로 된 프랑세즈 1층에는 심플하면서 세련된 인테리어로 이루어진 넉넉한 베이커리 매장이 있고, 2층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한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아담한 커피하우스가, 그리고 맛있는 빵을 구워내는 공장이 3층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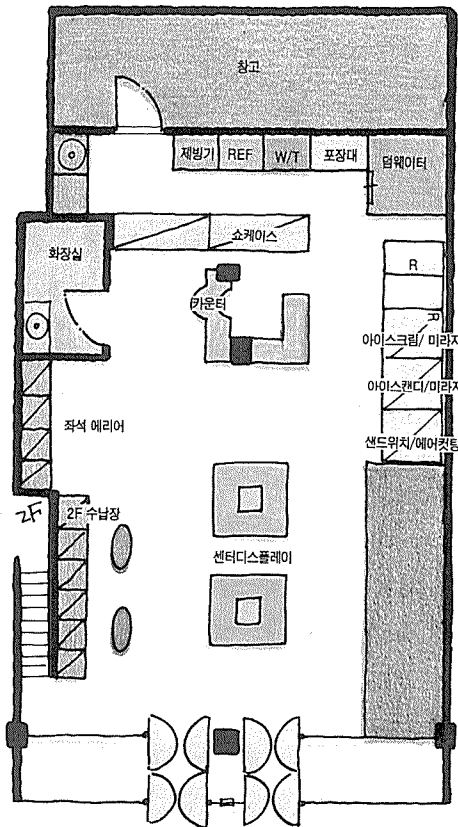
우선 45평 규모의 베이커리 매장은 베이지톤을 주조색으로 자연 무늬목의 디스플레이대를 꾸며 단순하면서 세련된 인테리어를 실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넓은 공간은 고객의 구매활동에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가운데 기둥이 있어 공간활용이 어려운 프랑세즈는 중앙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안쪽에 쇼케이스를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고객동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넓은 매장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한쪽벽에 의자를 마련한 것은 이곳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이곳 주인의 배려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빵을 사면서 버스시간을 기다리거나 약속한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프랑세즈가 몸과 마음이 함께 넉넉해지는 공간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21]

◀입구에서 바라본 1층 매장. 가운데 기둥으로 인한 공간활용의 어려움을 중앙디스플레이대와 카운터를 설치함으로써 고객의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프랑세즈가 위치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한쪽벽에 고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 의자를 마련하는 대신 쇼케이스를 안쪽에 배치하는 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④ 1층 매장 평면도.



① 매장 오른쪽에 위치한 빵디스플레이대. 무엇보다 프랑세즈의 매력은 넓은 공간과 단순하면서 세련된 인테리어에 있다. 자연무늬목의 4단 디스플레이대가 이런 단순한 공간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이게 한다.

② 안쪽에 위치한 쇼케이스가 매장의 베이지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쇼케이스 안쪽에는 컨택선오븐을 설치하고 이곳에서도 갖구운 빵을 구워내도록 했다. 또한 덤펀이트를 설치하여 3층 공장에서 구워낸 다양한 빵을 반입하기 쉽게 했을 뿐 아니라 공장매장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전체 3층 건물로 된 프랑세즈는 2층에 커피전문점을 둔 대형 복합점을 추구하고 있다. 빨간색 바탕에 흰색의 로고가 어디에서든 눈에 띄고 활기가 있어 보인다.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출입구를 두곳으로 내어 고객의 출입을 더욱 쉽게 했다.

주소:경기도 일산시 일산동 구일산 사거리 ● 매장면적:매장 45평, 커피숍 40평, 공장 40평 ● 외장 / 자기질 외장 타일 300X450, SST플래시 후레임 강화유리 FIX ● 내장 / 바닥:450X450 이태리 타일 벽:V.P도장 지정벽지, 줄라톤 천정:석고보드위 리카도장, 지정벽지 가구:오크무늬목+미송무늬목위 클리어 리카 ● 조명 / MR할로겐스프트,FL간접매입,U매입 ● 사인 / 파나플렉스위 3M로고 취부